

# 韓國精油産業의 發展過程

金 乾 洽

〈大韓石油協會·弘報室長〉

## I. 머리말

**현** 대사회에 있어서 에너지이용수준의 제고는 국민생활의 향상을 의미하며, 현대산업사회의 動力源으로서 에너지산업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石油은 가장 핵심적인 基礎에너지源으로서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석유화학공업을 통하여 衣·食·住의 모든 분야에서 현대인의 생활과 직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 초까지만 해도 에너지의 主宗 자원이 석탄이었으나,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精油工場을 최초로 건설, 가동하게 되고, 그간 산업의 고도화와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석유 소비는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石油은 우리나라의 主宗 에너지源이 되었으며, 석유류 소비가 총에너지 소비의 50%, 총수입액에 대한 석유수입금액의 비중이 27%를 상회함으로써 石油類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게 되었다.

精油産業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 보면, 전체 石油化學업종 전체생산액의 3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가가치효과도 전체의 19.4%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도의 자본 및 기술집약적 裝置産業이라 할 수 있으며, 석유류 소비가 하루에 약 50만배럴 규모에 이르고, 석유류제품 총매출액이 6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같이 국가경제에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精油産業은 경제성장에 필수불가결한 동력원인 基礎에너지의 안정공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이 일상 사용하는 연료는 물론 생활필수품을 만드는 石油化學製品의 기초소재를 공급하게 됨으로써, 우리들의 일상 의식주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또한 精油産業의 고용효과는 정유산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수가 약 5천여명에 이르며, 대리점, 주유소 등 유통단계에 종사하는 인원을 모두 합할 경우 수만명에 달하며, 관련산업의 연관효과까지 감안하면 그 고용효과는 엄청나다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石油類는 국가비상시 필수 물자임을 감안할 때, 精油産業은 국가안보측면에서도 절대 필요한 전략산업임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精油産業은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적인 측면에서 직접·간접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성장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계속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精油産業은 지난 64년 4월 油公이 하루 3만5천배럴 규모의 정유공장의 가동을 개시한 이후 올해로 만 20년을 맞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精油産業은 온갖 어려움과 역경속에서도 이를 잘 극복하여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成年을 맞이까지의 우리나라 정유산업의 발자취를 되돌아 본다.

## II. 精油産業의 發展過程

### 1. 旧韓末

우리나라에서 石油가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黃玘의 「梅泉野錄」 등에 나타나는 기록들을 보면 대략 1880년 경으로 추측된다. 「梅泉野錄」卷一上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온다.

「石油産自英美諸國, 或言取之海中, 或言石炭之源, 或言煮石以瀝之, 其說不一而其為…(中略)…我國自庚辰之後始用其初, 色赤而臭極惡, 一合可燃十夜, 不數年, 色漸白臭漸淡, 火力頓減, 一合僅燃三四夜」

(석유는 英國이나 美國같은 서양에서 나오는 것이라 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것이 바다속에서 난다고도 하고, 혹은 석탄에서 만든다고도 하고, 혹은 돌을 삶아서 그 물을 받은 것이라고도 하여 그 설이 다르다. …(中略)…우리나라에서는 경진년 이후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처음에는 그 색깔이 불그스레하고 냄새가 심했으나, 한훤이면 열흘밤을 밝힐 수 있었는데, 몇년 후 그 색깔이 희어지고 냄새도 덜 났지만, 화력이 떨어져 한훤으로 3,4일밤을 밝힐 수 있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石油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高宗 17년(庚辰年), 즉 서기 1880년 임을 알 수 있다. 高宗 13년(1876년) 日本과 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되고 무역이 시작된 이후 당시 문명의 총아로 각광을 받던 石油가 어떤 경로로든 한반도에 흘러 들어왔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또 다른 기록에는 역시 1880년에 開化僧 李東仁이 日本에서 석유와 램프, 성냥을 들여와 사용했다고 전하고 있다.

石油가 외국에서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胡麻油, 大豆油, 棉實油 등 식물성 기름이나 魚油, 牛脂, 豚油 등 동물성 기름, 또는 蜜蠟을 사용하여 불을 밝혔다. 前 京城大學 佛語강사였던 에밀 마텔에 의하면, 이 땅에 석유가 美國상사인 스탠다드石油會社의 제품을 수입하면서부터였다고 한다. 그후 러시아의 석유제품도 들여와 좁은 시장을 놓고 치열한 판매전을 벌였다고 한다. 한반도에 열강의 세

력이 몰려들면서 石油를 앞세웠다고나 할까. 문명의 혜택을 받기 시작한 이면에는 금수강산을 탐하는 열강의 세찬 바람이 있었던 것이다. 開化期 朝鮮에서 활동한 알렌이 지은 “KOREA FACT & FANCY”의 年表에는 1898년 서울시가에 石油燈이 점등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이 석유등에 의한 최초의 가로조명이 아닌가 생각된다.

### 2. 日帝時代

石油가 처음 사용된 것은 1880년대였지만 제대로 석유가 산업용으로 보급된 것은 日本 식민지시대였다. 日帝의 마수가 한반도를 유린하면서 日本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이 땅에 석유를 들여와 팔았다.

軍國 日本은 1930년경부터 대륙침략의 발판으로 한반도를 병참기지화했고, 그 일환으로 1935년 우리나라에 최초의 정유공장이 서게 되었다. 1935년 5월 11일자 東亞日報는 다음과 같이 朝鮮石油의 창립준비를 보도하고 있다.

「조선총독부가 국방산업상의 견지에서 석유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정부의 석유사업법에 모방한 국책으로써 석유사업령을 발령하고, 석유사업을 국가의 통제하에서 日本 내지, 朝鮮의 석유수급 및 가격의 조절을 꾀하는 외에 일정량의 貯油의무를 당업자에 부담시키기로 되었는데, 이와 동시에 석유사업의 起業필요를 인정하며, 原油를 수입, 정제, 시판하고 精製油의 수입을 防過할 필요를 느끼고, 석유정제업의 朝鮮內 설치를 계획중이던 바, 野口 朝鮮窯業사장은 총독부의 양해로써 日本内地, 日本石油, 기타의 관계자와 협조하여 석유사업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총독부에서 석유사업령에 의한 석유정제업 경영허가를 얻어 자본금 1천 만圓(4분의 1 불입)의 朝鮮石油(株)를 창립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주식 20만株 가운데 17만株는 日本内地, 朝鮮발기찬성인 인수로 하고, 3만주는 朝鮮內에서 공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同社의 발기인 및 찬성인은 다음과 같다.

▲ 발기인=橋本圭三郎, 山口誠太郎, 木村義雄(이상 日本内地측), 野口道, 朝鮮窯業, 賀田直治, 吉田秀次郎, 金季洙, 朴興植, 小倉武之助, 大島英吉, 永里高雄, 福島莊平, 杉野多市, 西田常三郎(이

상 朝鮮측)

▲ 주요한 찬성인=日本石油 東洋拓殖, 日本礦業 住友合資, 日商주식회사, 日本탕카, 石井鐵工, 進辰馬, 崔昌學, 淺野太三郎, 朴榮喆, 多田榮吉, 方台榮, 堤永市, 井上清, 大田忍, 鈴木鍾一, 加藤鑽次郎, 閔永武

당시 朝鮮石油의 공모주 3만株는 60대 1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민간주주들에게 배정되고, 1935년 6월 25일 京城公회당에서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임했다.

- ▲ 사 장: 野口道
- ▲ 전 무: 木村義雄
- ▲ 상 무: 閔永武
- ▲ 取締役技師長=大坪大計雄
- ▲ 取締役=野口道, 朴興植, 小川彌太郎, 小倉久之助, 福島莊平, 杉野多市, 金彝洙, 佐方文次郎
- ▲ 감사역=大島英吉, 賀田直治, 山口誠太郎

그 후 元山에 年産 30만톤(日産 약6천배럴) 규모의 정유공장이 건설되어 1936년 8월 1일 火入式이 거행됐다. 이것이 한반도에 건설된 최초의 정유 공장이었다. 이에 앞서 美國産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1936년 6월 元山에 입항했는데 이는 元山개항 이래 최대의 선박이 최초의 원유를 싣고 입항한 것이었다.

朝鮮石油은 그후 확장되어 年産 40만톤 규모로 시설용량이 늘어 한반도내 수요를 충당해 나갔으며, 물량이 부족할 때는 美國産 精製油를 수입하기도 했다.

1940년에는 이 元山공장에서 윤활유 생산을 개시해 고급 기계유를 선보이기도 했다. 朝鮮石油은 1930년대말부터 유전개발계획도 세웠으나, 작업개시전에 태평양전쟁을 맞아 좌절되었다. 元山정유공장은 1945년 日本이 패망할 때까지 계속 가동됐는데 1944년에는 공장시설의 일부를 전략상의 이유로 蔚山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증류시설의 일부만을 옮긴 채 8.15 해방을 맞았고, 그 후 정치·사회적 상황이 복잡해져 이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表-1〉 日帝時代 石油流通組織

石油會社	Standard Vaccum Oil Co. (美 国)	Texas Oil Co. Ltd.(美 国)	Shell Oil Co. (英 国)
代理店	朝鮮中央米油(中鮮地区) 南朝鮮米油(南鮮地区) 北朝鮮米油(北鮮地区)	第一社	
注油所	驛前注油所		鍾路注油所
商 標	龍馬標메가사쓰(揮 発 油) 솔  표(燈 油) 승  리  표(燈 油)	별  표	赤色조개표

(資料) 韓國石油開發公社, 石油流通의 變遷過程, 1981. 2

日帝 당시 우리나라에 진출한 석유회사는 美國의 Standard Vaccum Oil Co.와 Texas Oil Co., 그리고 英國의 Shell Oil Co.의 3개 회사였다. 이 가운데 Standard Vaccum Oil Co. 산하에는 朝鮮中央米油, 南朝鮮米油 및 北朝鮮米油 등 3개 대리점이 있었으며, 서울에 역전주유소가 있었다. 또 이 석유회사가 쓰는 상표로는 龍馬標 배가사쓰(휘발유), 솔표, 승리표(燈油)의 3가지가 사용되었다. Texas Oil Co.의 대리점은 第一社 밖에 없었으며, 그들이 쓰는 상표는 솔표였다.

한편 Shell Oil Co.는 元山, 咸興에 저유소를 두고, 주유소로는 서울에 종로주유소를 두었고, 상표는 赤色조개표를 사용했다. 해방 직전 朝鮮石油은 총판회사인 朝鮮石油配給(株)을 설립하고, 각 지방에 대리점을 두었다. 또 각 郡마다 副販人을 두고, 대리점에서 분배하였고, 서울, 仁川, 釜山, 影島, 群山, 木浦 등에는 油槽所 및 창고를 둔 저유소가 설치되었다.

### 3. 美軍政時代

해방후 美軍은 1946년 석유제품의 수입·배급기관으로서 美軍政庁石油配給代行會社 (Petroleum Distribution Agency)를 발족시켰으며, 국내석유류제품 수급은 이 PDA를 통해 軍用제품이 공급되었다. 朝鮮石油도 美군정의 관리를 받게 되었으며, 朝鮮石油配給도 PDA에 흡수되었고, 석유분배를 담당하는 석유배급조합이 각 지역별로 결성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따라 石油配給代行會社는 美24사단 民事處로 이관되었다가 1949년 1월 大韓石油貯藏주식회사(Korea

〈表-2〉 美 軍政時代의 石油配合組合 分布

地 域	組 合 名	計
서울, 경기, 영서	中央石油配給組合	1
仁 川	仁川石油配給組合	1
忠 南	大田石油配給組合	3
	天安石油配給組合	
	鳥致院石油配給組合	
忠 北	清州石油配給組合	3
	堤川石油配給組合	
	永同石油配給組合	
全 北	全州石油配給組合	2
	群山石油配給組合	
全 南	光州石油配給組合	3
	木浦石油配給組合	
	麗水石油配給組合	
慶 北	慶北石油配給組合	2
	金泉石油配給組合	
慶 南	慶南石油配給組合	1
計		16

〈資料〉 〈表-1〉 과 同一

Oil Storage Company:KOSCO) 가 설립되면서 이 회사가 모든 석유류의 저장 및 판매업무를 주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同社는 저장업무만을 관장하고, 판매는 Standard Vacuum Oil Co., Caltex Oil Co. 및 Shell Oil Co. 등 3개 석유회사로 분리되어 각社마다 산하에 대리점을 두어 판매했다.

〈表-3〉에서 보는 바와 같이 Standard는 총14개社, Caltex 10社, Shell 10社의 대리점을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京畿지역이 6사로 제일 많고, 다음에 慶北이 5社, 忠北, 全南이 각각 4社 등으로 전국적으로 총34社의 대리점이 형성되었다.

한편 정부에서는 朝鮮石油의 재건을 위해 1949년 韓美合同管理委員會를 조직하고, 당시로서는 막대한 2억5천만圓의 자금을 투입하여 蔚山정유공장시설의 복구와 확장공사를 실시하여 가동단계에 까지 이르렀으나 외환사정의 악화로 원유 구입이 어려워 결국 가동을 보지 못한 채 6.25동란이 발발하자 이 시설은 유엔군의 유류보급창으로 징발당하

고 말았다.

만일 그당시 이 공장이 계획대로 정상 가동을 했더라면 그 무렵의 국내 석유류 수요량인 연간 33만 톤의 약 60% 정도는 공급하였을 것이다.

〈表-3〉 美 軍政時代의 代理店 分布

石油會社 地域	Standard	Caltex	Shell	計	
서울, 京畿	中央美油 大同石油	第一社 朝陽石油	美隆商社 三一社	6社	
忠 南	忠南美油	忠南石油	忠南조개標	3社	
忠 北	忠北美油 堤川美油	忠北石油	忠北조개標	4社	
全 北	全北油業	全北石油	天韓石油	3社	
全 南	全南美油	大同石油	全南石油 全南조개標	4社	
慶 北	嶺南石油 金泉美油 韓一美油	慶北肱油	慶北油業	5社	
	慶 南	韓国美油	韓美石油	慶南조개標	3社
	嶺 西	江西美油	東国実業		2社
嶺 東	嶺東美油	嶺東石油	東海油業	3社	
濟 州	濟州美油			1社	
計	14社	10社	10社	34社	

〈資料〉 〈表-1〉 과 同

#### 4. 戰後復旧時代

美軍政時代에 설립된 大韓石油貯藏會社(KOSCO)는 1950년 6.25동란으로 Standard, Caltex, Shell의 판매회사가 철수함에 따라 직접 판매를 전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군용유류가 우선적으로 조달되고 배급유류가 부족하게 되자 KOSCO 대신 「엔에크」, 「폴」 등 美軍 유류관할을 거쳐 石油輸入에 급증했다.

1954년 정부에서는 다시 정유공장시설의 補修계획을 세우고, 1955년 6월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이 계획도 하루 3천4백배럴에 불과하여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또 다시 무산되고 말았다.

1955년 5월 정부는 점차 늘어나는 석유류수요에 대비하여 韓美石油運營協定을 체결하여 석유제품의 취급, 저장 및 관리를 규정하게 되었다. 이 협정은 韓國, 美國 및 大韓石油貯藏會社의 3者협정으로 일명 KOSCO협정, 또는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았다하여 비밀협정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였다.

이 협정의 주요골자는 韓國이 도입하는 석유류제품의 外貨조달을 美國정부가 보장하고 Caltex, Standard, Shell 등 3대 메이저에 의해 구성되어 있던 大韓石油貯藏會社가 석유류제품의 인수, 저장, 배급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6.25동란중 美軍이 정발 또는 건설, 사용하고 있던 유류저장시설 전부가 韓國정부에 이관된 셈이었으나, 국내석유류공급은 계속 大韓石油貯藏會社가 독점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1964년 油公이 그 시설과 업무를 인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다시 말하여 大韓石油貯藏會社가 석유류 完製品을 도입, 저장하고, 정부의 지시에 따라 3대 메이저의 각 대리점이 각 시도별로 배급, 판매하였다. 이러한 석유류제품의 수급 및 유통과정의 엄격한 통제에는 당시 정부의 외환사정등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현상들을 유발시키게 되었다.

〈表-4〉 年度別 石油類 導入狀況 (1955~1963)

(단위: 천배럴)

연도	揮發油	燈油	輕油	重油	항공유	計
55	804	289	503	573	1	2170
56	1,373	375	551	1262	6	3567
57	1,288	260	498	1417	14	3477
58	1,302	261	755	1893	7	4218
59	1,166	265	904	2683	11	5029
60	1,257	301	1,012	2465	11	5046
61	1,071	372	1,176	2795	11	5425
62	707	391	1,938	3638	11	6685
63	565	384	2,215	4155	22	7341

첫째, 이 협정기간중 상공부는 AID로부터 받은 石油도입자금을 분기별로 분할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원조금 자체가 수요에 비해 미흡하여 사실상 소비가 지나치게 억제되어 二重의 시장구조가 형성되었다. 즉 수급계획이 수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조자금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공급계획 또한 국내의 필요에 따르기 보다는 공급가능량을 배분하는 데 그쳐야 했다.

둘째, 디젤화 정책의 실시이다. 즉 외화 절약을

위하여 도입가격이 비싼 휘발유의 소비를 억제하고 값싼 輕油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揮發油稅를 대폭 인상하는 한편, 디젤화등을 추진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휘발유 소비는 1956년을 고비로 점차 감소하게 되고, 대신 輕油의 수요는 급증하게 되었다.

〈表-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제배급 시기의 석유류제품의 수요는 6.25동란후 경제재건 및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연평균 약 2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당시의 석유류는 全量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과중한 외화 부담은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경제자립을 위한 정유공장건설이 점차 시급한 과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1958년 민간인들에 의한 정유공장건설추진위원회가 발족되고, 이듬 해인 1959년에는 韓國石油주식회사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뒤이어 韓國石油는 정유공장 건설에 필요한 5백만달러의 외환차입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외자차관에 관한 外資導入法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었으므로 이 요청은 차일피일 미루어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韓國石油의 사업도 과거 몇차례의 시도처럼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한편 韓美석유운영협정은 그후 韓美石油協定으로 다시 체결되어 韓美間 합동석유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1960년 7월 石油配定要綱이 시행되기까지는 시도지사가 郡別로 판매가격을 고시해 왔으나, 이 요강이 발효되면 석유분배 및 판매가격에 관한 결정을 행정부에서 단게 되었다. 같은 해 10월 26일부터는 정부에서 不正油類를 단속하고, 稅收를 확보하기 위해 휘발유 소비자에 대해 消化證제도를 실시했다. 휘발유소비자는 시도지사가 발행한 소화증을 사용하여 휘발유를 구입하고, 판매인은 소화증에 주유일자, 수량, 주유소명을 기입하고 있어서 이 소화증을 사용하지 않는 자는 不正油類 사용자로 간주되었다.

지금까지의 석유배정요강과 소화증제도를 정리하여 석유제품의 판매 및 가격에 대한 합리적 운영을 목적으로 1962년 11월 26일 석유운영협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970년 石油事業法이 제정될 때까지 유통체계를 규제하여 왔다.

## 5. 精油産業時代

### (1) 油公의 탄생

油公이 설립되던 1962년은 국내적으로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이 뒤엉킨 혼란의 소용돌이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지향하는 하나의 전환기였다. 즉 정치적, 사회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은 1960년 전후의 불안정한 상황이 점차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로서 50년대의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강렬한 의지가 국내 모든 분야에 파급되고 있을 때였다.

당시 정부에서는 경제자립에 의한 국력배양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또 정부에서는 무엇보다도 石油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없이는 이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으로서, 또한 輸入代替産業의 핵심사업으로서 정유공장 건설계획을 최우선사업으로 채택했다.

정부는 정유공장 건설사업을 제1차 5개년계획의 중요사업으로 책정함에 따라 1962년 1월 26일 大韓石油公社(현재의 油公)의 설립을 각의에서 의결하고, 이어 4월에는 美國의 Universal Oil Products Co.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 蔚山에 정유공장건설을 위한 예비조사를 의뢰했다.

1962년 7월 24일에는 大韓石油公社法이 제정 공포되고, 8월 26일에는 상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9인의 油公설립위원회가 발족되고, 9월 10일에는 引受주식 2백50만주에 대한 6억2천5백만원의 자본불입이 완료되었다.

이어 9월 3일 상공부장관으로부터 油公 정관이 인가되고, 10월 13일 설립등기를 마치고 紙上(서울신문, 한국일보)에 설립등기를 공고함으로써 油公의 역사적인 창립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油公설립과 함께 蔚山공업단지내의 古沙洞 일대를 정유공장부지로 선정하고, 건설공사를 1962년 9월에 착공하여 이듬 해 8월까지 완공한다는 방침 아래 정부보유달러貨 및 정부자금중에서 외화 1천6백만달러, 내자 3억5천만원 등 총25억원을 건설비로 책정했다. 당초 정유공장의 시설규모는 정부의 수요 과소추정등으로 原油 정제능력 2만 5천B/D로 계획되었으나, 추진과정에서 3만5천B/D로 수정되었다.

1962년 10월 정부는 UOP社에 의해 실시된 예비조사 및 기본설계를 토대로 美國 Fluor社와 총공사비 1천6백만달러, 건설기간 10개월의 조건으로 정유공장건설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Fluor社에서는 세부설계 및 기자재 등을 발주하는 한편 부대설비공사를 위해 原油탱크를 포함한 저장탱크공사에는 美國의 Chicago Bridge & Iron Co.를, 송유관부설공사에는 大韓造船公社를 하청업자로 선정, 이듬 해 3월부터 공사에 착수했다.

이 공사는 당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건설되는 대규모 플랜트여서 공사도중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였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Fluor社의 성의있는 노력으로 1963년 12월 14일 예정보다 약 2개월 앞당겨 준공을 보게 되었다. 油公은 1964년 2월 15일부터 약 45일간의 시운전을 거쳐 같은 해 4월 1일을 기해 정상가동에 들어감으로써 역사적인 석유류제품의 국내 첫 생산이 시작되었다.

### 걸프의 경영참여

그런데 油公의 정유공장 건설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美國 걸프社의 경영참여이다.

당시 정부에서는 정유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순수한 국내자본으로 건설, 운영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엄청난 자금조달이 정부의 외환사정빡박과 국내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해 난관에 부딪치게 되어 공장건설은 한때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당시 정부가 정유공장건설을 위해 불입한 자본금은 1962년도의 6억 8천 8백만원을 필두로 1963년까지 모두 7 차례에 걸쳐 총18억 7천 5백만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공장건설을 완성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밖에도 시운전, 원유도입, 수송, 판매시설의 확보 등 기타 제반운영비가 추가적으로 요청되었다. 더구나 이러한 추가재원의 대부분은 달러로 충당해야 한다는 난점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속에 당시의 국내경제여건은 민간자본의 축적이 미미한 형편이었으며, 정유공장건설 및 운영에 대한 기술이나 경험 또한 全無한 상태였으므로

정부는 부득이 당초 계획했던 국내자본에 의한 油公 운영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방침변경에 따라 1963년 3월 정부는 정유공장건설에 따른 부족자금 補塲를 위해 외자도입을 결정하게 되었고, 그 교섭과 추진을 油公에서 직접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油公은 같은 해 4월에 외자도입교섭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로 Shell, Esso, Mobil, Caltex, Gulf 등 美國의 5대 석유회사에 대해 투자유치교섭에 나섰다.

당시의 교섭상황에 대해 「油公20年史」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당시 우리 나라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다소 불안한 상태여서 외국인의 투자대상에서 거의 제외되어 있었다. 더구나 후진국에 대한 자본진출은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조건이 아니면 선뜻 나서지 않는 것이 石油메이저의 생리였다. 이런 관계로 해서 몇몇 메이저들이 일단 소극적인 관심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요구는 우리 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그러던 중 걸프社로부터 25%의 油公주식참여(약 5백만달러)와 2천만달러의 장기처리차관(3년 거치, 12년 상환, 年利 4.5%)을 제공하겠다는 비교적 유리한 조건이 제시되었다. 油公에서는 이를 검토한 결과, 1963년 6월에 자금 및 원유공급을 골자로 한 9개항의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각의통과로 최종 확정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걸프社는 油公의 주주가 되었고, 또한 우리나라에 진출한 최초의 외국기업이 되었다.」

걸프社의 韓國진출은, 自社의 투자이익을 위한 것이긴 하였지만, 당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며, 또한 다른 외국자본들의 韓國진출의 길을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도 그 업적은 무시될 수 없을 것이다.

### 정제시설의 확충

그 동안 油公은 정유부문에서 국민경제의 성장에 따라 급증하는 석유류수요에 맞추어 정제시설의 확장을 거듭하여 설립 당시 정제능력 3만 5천B/D에서 무려 8배나 늘어난 28만B/D의 국제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석유화학분야에서도 국내 최초로 나프타분해시설을 설치, 가동하여 우리 나라 석유화

학공업의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동안 꾸준한 기술축적과 원유도입선의 안정화로 계속 성장, 발전해 온 油公은 지난 1980년 8월 合作先이었던 Gulf社가 철수한 후, 정부의 민영화방침에 따라 같은 해 12월 23일 鮮京이 Gulf지분 50%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여 순수한 국내자본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였으며, 1982년 7월 1일에는 商号를 대한석유공사에서 주식회사 油公으로 변경했다.

油公 설립 이후 오랜 동반자로서 또한 대주주로서 油公의 경영에 참여해 왔던 Gulf는 외국기업으로서 최초로 우리 나라에 진출한 기록을 세웠으며, 또한 국내에 진출한 메이저中에서 최초로 철수한 기록을 세웠다.

Gulf의 철수는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1970년대 후반 정유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강화와 이에 따른 油公의 수익성악화는 그 동안 Gulf가 누려왔던 양호한 투자이익에 압박을 가하게 되었고, 적정이익보장 등에 대한 정부와의 견해차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1979년의 제2차 석유위기는 이란 및 쿠웨이트 등 中東지역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던 Gulf의 원유공급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게 되어 결국 油公에 대한 Gulf의 원유공급도 1980년 3월로서 중단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제반요인으로 인해 Gulf는 1970년 제2차 주식인수계약 당시 명시되었던 주식이익양조건, 즉 1974년 이후 배당금과 유보이익이 Gulf의 2차 투자액의 150%에 도달할 때까지 油公의 주식 50%와 운영권을 소유하고, 그 이후에는 油公의 주식 25%를 다시 우리 정부에 이양한다는 조건과는 달리 전면 철수를 단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Gulf는 1963년 油公에 투자한지 약 17년, 운영권인수로부터는 약 10년만에 완전 철수하게 되었다.

### 걸프의 功過

Gulf는 그 동안 油公운영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경제성장에 있어서 여러가지 功過를 남겼다.

우선 Gulf가 남긴 업적을 살펴 보면, 첫째, 油公 설립 당시 우리 나라의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진출하여 양호한 투자수익

을 실현시켜 韓國에 대한 투자안전도를 입증해 줌으로써 對韓 투자를 망설이던 외국 투자자본의 韓國 러시를 이루게 한 계기를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우리 나라 경제개발 초기의 외자유치 환경조성에 많은 기여를 했다.

둘째, Gulf의 진출로 당시 건설자금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던 油公의 蔚山정유공장이 완공을 보게 됨으로써 우리 나라 정유산업이 빛을 보게 되었고, 그 후 Gulf의 차관 및 추가투자 등에 힘입어 급속한 시설확장, 유회율 및 석유화학사업에의 진출도 성공적으로 이룩하게 되었다.

셋째, Gulf는 국내 석유류수요의 충족을 위해 상당량의 原油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었다. 즉 제1차 석유위기로 원유공급이 어려웠던 1974년에도 국내 수요분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는 등, 우리나라 기초에너지수급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또한 기술계약에 따른 우리 기술자들의 해외 연수교육을 통하여 精油 및 석유화학과 관련된 선진기술 습득 및 방대한 裝置産業의 현대적인 운영방법을 油公경영에 도입하여 정착시키는 등 다방면에 걸쳐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업적과는 달리 Gulf의 油公참여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유발시키기도 했다.

첫째, Gulf의 韓國진출과 공헌의 밑바탕에는 근본적으로 그들 자체의 경영전략과 이익추구가 최우선적이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었으며, 그 결과 Gulf는 그들의 세계적인 경영전략에 있어 油公을 이익창출을 위한 하나의 사업단위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운영함으로써 국가경제의 핵심적 기간산업체로서의 油公운영이라는 정부의 정책과 근본적으로 일치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정유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된 1970년대에는 적정이윤 보장 및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여러번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둘째, 이러한 Gulf의 투자수익 중심의 油公운영은 장기적 비전에 의한 繼續企業으로서의 사업확대 및 성장기반 구축보다는 단기적 운영실적에 많은 비중이 주어짐으로써 석유화학이나 유회유사업진출에도 불구하고 油公의 사업영역은 본질적으로 정유산업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말았다.

셋째, 단기적 수익 중심의 油公운영은 기업경영의 주체가 되는 人力 및 조직상에 있어서도 여러가

지 문제점을 가져왔다. 즉 조직의 능동적 운영과 효율적 향상을 위하여 채택된 美國式 부사장제의 도입은 조직을 기능별로 다원화하여 부문별 책임경영과 人力의 전문화를 가져 왔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社會의인 관점에서 유기적이고 탄력적인 경영활동의 둔화를 가져왔다.

### 걸프의 철수

어쨌든 Gulf는 17년의 油公 참여기간 동안 여러 가지 업적과 문제점들을 남기고, 그들이 그동안 투자했던 3천만달러의 약 1.7배에 해당되는 5천 1백만달러의 과실송금과 1980년 철수시 油公지분 50%에 대한 평가분으로 9천 3백만달러라는 상당한 금액을 회수해 갔다.

그러나 Gulf의 功過를 재평가하고, 그들의 철수가 지니는 포괄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Gulf의 투자금액이나 과실송금액 多寡가 아니라, 油公이라는 국가기간산업체의 성장과정,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국력의 신장이라는 시간적 흐름속에서 파악되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것과 같이, 당초 Gulf는 그들의 잉여원유의 처분을 위해 韓國에 진출했고, 따라서 수송, 정제 및 판매의 전과정을 통해 이익을 도모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원유공급이나 수송이 메이저들에 의해 독점되어 있었고, 동시에 빈약한 자본축적이나 낮은 기술수준 등의 우리나라 경제능력등에 비추어 보아도 불가피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油公도 자본축적과 많은 경험 및 기술습득을 이룩하여 왔고, 우리나라 정유산업과 石油化學工業의 토대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결국 韓國과 Gulf, 油公과 Gulf의 관계는 완전히 자유스럽고 대등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대단한 불평등 또는 예측적인 그런 관계도 아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1963년 Gulf의 韓國진출이 油公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제반요소의 보완을 가능케 하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는데 意義가 있다고 한다면, 1980년의 Gulf의 철수는 지금까지 외국자본 및 기술에 크게 의존해 왔던 우리나라 경제가 自立經濟로 전환하는 시대적 전



환점이 되었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 (2) 湖南精油의 설립

湖南精油의 탄생은 럭키의 사업영역의 확장에서 비롯되었다. 1961년 5·16혁명후 정치 사회적 안정 위에 개발전력이 주효함으로써 산업발전의 기반이 구축되는 가운데 韓國경제는 외자를 이용하여 비약적인 성장가도에 들어섰다. 럭키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일찌기 에너지産業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때마침 韓國진출을 도모하던 칼텍스와 손을 잡고 최초로 민간에 의한 정유공장 건설을 추진했다.

1957년부터 럭키가 전략적으로 선정한 사업은 PVC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는 결국 北三化學에 先手を 뺏겨 무산되고 말았다. 1961년 5·16혁명후 정부는 재벌급 기업에 대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사업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했다. 럭키는 그동안 연구, 검토한 바 있는 나일론, 셀룰로즈, 아세테이트 등 섬유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는 럭키에게 새로운 전략산업에 진출하기를 권유했다. 그것은 電線사업이었다. 이리하여 1962년 韓國케이블(現 金星電線)이 설립되었다.

1965년 正月 초순이었다. 具仁會회장은 具平會전무(당시)와 韓聖甲기획부장을 불러 장래의 새로운 사업프로젝트를 연구할 것을 지시했다. 具전무와 韓부장은 럭키의 오랜 숙원인 플라스틱원료제조사업의 청사진인 가칭 韓國石油化學工業(株) 사업계획서를 제시했다. 석유의 모든 것을 망라한 이 계획서는 어떤 의미에서 자금계획상 실현가능성을 도외시한 이상에 가까운 것으로 정부의 반응은 냉담했다. 특히 정유부문에 대해선 에너지산업에의 민간참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1965년말 具전무는 美國과 日本의 정유업계를 돌아보고, 정유사업은 기업의 성장과 국가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며, 민간기업도 성실한 해외파트너와 협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다. 具전무는 귀국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석유사업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여 긍정적 반응을 얻고, 조직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開發部를 신설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具전무를 정점으로 한 개발팀이야말로 湖南精油 탄생의 모체였다.

具전무는 개발부가 작성한 각종 자료를 들고 張

基榮경제기획원장관과 朴忠勳상공부장관을 만나 럭키의 석유사업능력을 설명하고 정부의 內인가를 촉구했다. 한편 國際新報의 徐廷貴사장은 政界요인과 접촉하면서 측면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개발부 발족과 함께 韓國石油化學工業사업계획서는 백지화되고 오로지 석유정제사업으로 그 범위를 좁혀 구체적인 정유사업계획의 작성에 들어갔다.

## 精油工場 건설계획

그러나 정유산업처럼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장치산업을 1개 기업의 힘만으로 건설,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럭키가 외자도입으로 정유사업을 추진한다는 꿈을 구체화시키고 있을 때 한국의 외자도입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었다.

정부는 1966년 4월 늘어나는 석유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2정유를 건설하기로 하고, 실수요자를 공모하기에 이르렀다.

張基榮경제기획원장관은 1966년 4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하루 정제능력 6만배럴 규모의 제2정유공장을 麗水에 세울 계획이라고 밝히고, 『계속 늘어나는 유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蔚山정유공장의 시설용량을 하루 3만5천배럴에서 5만5천배럴로 확장시키는 외에 하루 6만배럴 규모의 제2精油를 건설하며, 이 공장은 제2차 5개년계획의 핵심사업인 石油化學콤비나트 건설의 일환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2정유 공모에는 美國의 Socony Mobil 社와 日本의 미쓰이社와 제휴한 湖南精油 외에도 롯데계열의 東邦石油, 阪本계열의 三南石油, 韓國火藥계열의 東洋石油, 三洋航海계열의 三洋開發, 漢陽계열의 漢陽石油 등 5개 기업이 응모했다. 東洋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던 Caltex는 마감 전날 제2정유 건설에 참여할 뜻이 있다는 서신만을 보내고 정식서류를 접수치 않아 탈락했다. Caltex는 오래전부터 韓國시장에 진출을 희망했으나 공모마감일이 너무 촉박하여 韓國측 파트너와 제휴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마감 전날 韓國정부에 제2정유에 참가할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러브레터」만 제출했던 것이다. 이 러브레터가 럭키와 Caltex를 결합시켜 湖南精油를 탄생시킬 줄은 당시에는 아무

도 몰랐다.

1966년 8월 8일 張基榮 경제기획원장관은 폭탄적인 발표를 했다. 즉 정부는 제2정유에 참여를 원하는 외국회사들에게 차관 및 원유공급조건의 개선을 요구하고, 응모업체들에게도 건설조건의 개선을 지시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5월 7일의 사업계획서 공모를 백지화하는 조치였으며, 공모에 참여하지 못한 국제석유자본이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럭키도 정부로부터 차관도입조건등의 개선지시를 받았다. 럭키는 차관조건을 정부안에 맞추기 위해 부득이 차관산을 전환하기로 하고 미쓰이와 Mobil에 대해 각종 계약의 해지를 통고했다.

### 럭키를 실수요자로 선정

결국 정부는 럭키에게 기회를 주었다. 1개월 이내에 Union이나 Caltex와 협의, 정부안과 같은 조건으로 제2정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럭키는 먼저 Union과 접촉했으나 실패하고, 다시 Caltex와 절충을 벌였다. 럭키와 Caltex가 상견례를 가진 것은 1966년 9월 중순이었다. 具平會전무와 Caltex의 아시아지역책임자인 L. E. Stone 사이의 1차 협의에서 제2정유 참여의사를 상호 확인하고 공동 노력할 것에 합의했다.

그후 양측의 협상은 급속도로 진전되어 결국 럭키와 Caltex는 합작투자에 합의하고 새로운 제2정유 사업계획서를 당국에 제출했다. 마침내 1966년 11월 17일 정부는 제2정유의 실수요자로 湖南精油를 지정하고, 1967년초에 麗水에 하루 6만배럴 규모의 정유공장을 착공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럭키와 Caltex는 2개월여의 협상끝에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고 12월 7일 합작투자계획서에 정식 서명했다.

Caltex의 韓國진출은 초기 정유산업의 독점자 Gulf에 대한 견제로서 소비자보호와 원유도입선의 다변화에 轉機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원유도입선의 다변화에 있어서는 Gulf루트에 대한 Caltex 루트의 확보와 도입선의 다변화라는 두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당시 정부의 전략은 정유산업에 있어서의 Gulf의 독점체제를 Caltex와의 寡占體制로 바꾸면서 양자의 상호견제 속에

韓國측의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결과 湖油의 경영권은 韓國측이 장악하게 되었고, Caltex의 원유공급권은 무기한이지만, 1974년부터는 소요원유중 20%의 자주구입권을 갖는등 油公에 비해 유리하게 되어 있다.

### 여수공장의 준공

湖油는 1969년 6월 3일 麗州공업단지에 하루 정제능력 6만배럴 규모의 정유공장을 건설, 가동에 들어갔다.

朴正熙대통령은 이날 준공식에서 致辭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정유공장은 하루 6만배럴의 기름을 생산합니다. 蔚山에 세워져 있는 大韓石油公社의 11만 5천배럴과 합쳐서 17만5천배럴의 기름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는 우리나라 産業건설을 위해서, 또 모든 에너지공급을 위해서 커다란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장도 머지 않아 확장을 단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基幹産業으로서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큰 공헌이 있을 것으로 믿어마지 않습니다.』

하루 6만배럴의 第2精油공장의 탄생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湖南精油 15年史」는 그 의의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첫째 第2精油의 탄생은 에너지공급의 확대를 가져왔다. 韓國은 1967년 당시 의욕적인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추진을 뒷받침할 에너지공급의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했다. 第2精油의 건설은 그러한 에너지수요를 適期에 공급할 수 있었다는 데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둘째, 第2精油의 탄생은 1964년 油公의 蔚山정유공장 가동이후의 독점공급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석유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한편 석유류제품의 다양화와 품질개선의 시발점이 되었다.

세째, 석유화학공업의 기초원료공급이 확대되었다. 네째, 국제수지의 개선과 고용증대의 효과를 들

수 있다.

다섯째, 工業의 不毛地라고 할 수 있었던 麗水에 대단위정유공장을 건설함으로써 湖南 지역사회 개발에 크게 기여했다. 麗水정유공장건설을 계기로 麗水지역에 대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활발해졌으며, 麗川공업단지건설계획이 현실적인 비중을 갖게 되었다.』

그후 湖南精油는 증설을 계속, 1972년 10월에 정제능력을 16만B/D로 확장했고, 1978년 11월에는 다시 23만B/D, 그리고 1981년 6월에는 38만 B/D로 증설하여 국내최대의 정유회사로 등장했다.

(3) 京仁 · 雙龍 · 極東

京仁에너지는 韓國火藥그룹과 美國의 獨立系석유자본인 Union Oil이 50대50의 비율로 출자하여 1968년에 설립되었으며, 1972년 4월 仁川에 하루 정제능력 6만배럴 규모의 정유공장을 준공했다.

韓國火藥그룹은 앞서 제2정유공장 건설을 둘러싼 경쟁에 참가하여 실패했으나, 계속 제3정유공장 건설을 추진한 결과, 仁川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이에 필요한 연료공급을 목적으로 簡易연료처리시설 신설인가를 얻어 京仁화력발전소를 설립했다.

이 때의 인가조건으로는 B-C油 및 나프타만을 생산, 판매하고, 그 외는 수출한다는 부대 조건이 붙여졌으나, 발전소건설 도중에 京仁에너지로 社名을 바꾸고, 1970년에 이 조건을 없애는데 성공하여 제3정유공장으로서 정제에서 수송, 판매까지를 담당하는 一貫會社가 되었다.

京仁에너지의 韓國측 출자자가 韓國火藥그룹인 것은 湖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간자본육성을 위한 시책의 결과이며, 또 외국측 출자자가 Union Oil인 것도 원유도입선의 다변화와 이미 韓國에 진출하고 있는 메이저에 대한 견제로 풀이될 수 있다.

京仁에너지가 본격적인 가동을 개시한 것은 제3차 5개년계획의 첫 해인 1972년이었으나, 同社의 정유공장 건설이 제2차 5개년계획기간중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보면, 새로운 사업의 전개라고 하기 보다는 산업기반의 확충에 그 주안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湖油와 京仁에너지의 자본구성패턴에 기본적인 차이가 없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는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1964년 11월에 설립된 極東石油는 1965년 12월 英國系의 Royal Dutch Shell과 합작으로 釜山에 하루 정제능력 5천배럴 규모의 정유공장을 세웠다.

이와 같이 일찌기 민간석유류 종합정제 공장으로서 발족한 極東石油는 1978년 8월 시설확장으로 현재 하루 1만배럴의 정제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는 85년말까지 6만B/D를 증설, 총7만B/D규모로 확장할 계획이다.

〈表 - 5〉 國內 精油工場 現況

社別 区分	油 公	湖 油	京 仁	雙 龍	極 東
施設能力(만B/D)	28	38	6	6	1
稼 動 年 度	1964	1969	1972	1980	1965
工場所在地	蔚 山	麗 川	仁 川	溫 山	釜 山
82년말自己資本	900 억	764 억	393 억	165 억	12억
其他사업내용	石油化学 운 환 유	운 환 유	發 電	운 환 유	운 환 유
外國合作先	Gulf (1980천수)	Caltex	UNOCO (1983천수)	NIOC (1980천수)	-

· 제5정유회사인 雙龍精油는 당초 雙龍그룹과 NIOC(이란국영석유회사)의 합작으로 세워졌다.

雙龍洋灰를 모체로 하여 종합무역, 해운, 제지, 보험, 언론 등 대기업으로 자라온 雙龍그룹이 정유산업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은 1973년 제1차 석유위기 이후 몰아닥친 자원내셔널리즘의 소용돌이 속에서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불가결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는 原油직거래 및 공급선의 다변화라는 정부시책에 이어져 제4차 5개년계획의 중요한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雙龍洋灰는 약 2년여의 교섭끝에 국내 최초로 산유국인 이란의 NIOC와 50대50의 합작으로 장기 원유공급계약아래 1976년 1월 韓國 · 이란석유회사를 설립하고 1980년 5월 溫山에 하루 정제능력 6만배럴 규모의 운환정유공장을 준공했다. 이는 제1차 석유위기 이후 세계 석유산업사상 산유국과의 합작투자공장이 소비국에 건설한 유일한 예가 되었다.

그러나 1979년 이란혁명후 NIOC가 1980년에 철수하게 되자 雙龍洋灰는 이란측 소유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순수민족자본의 雙龍精油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表-6〉 精製施設能力

(單位：1,000BPSD)

	計	油公	湖油	京仁	雙龍	極東
1964	35	35	-	-	-	-
1966	40	35	-	-	-	5
1967	60	55	-	-	-	5
1968	120	115	-	-	-	5
1969	180	115	60	-	-	5
1970	220	115	100	-	-	5
1971	270	115	100	50	-	5
1972	400	175	160	60	-	5
1973	400	175	160	60	-	5
1974	440	215	160	60	-	5
1975	440	215	160	60	-	5
1976	440	215	160	60	-	5
1977	440	215	160	60	-	5
1978	580	280	230	60	-	10
1979	580	280	230	60	-	10
1980	640	280	230	60	60	10
1981	790	280	380	60	60	10
1982	790	280	380	60	60	10
1983	790	280	380	60	60	10

지난 1964년 4월 油公의 3만5천B/D규모의 蔚山정유공장의 가동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정제시설능력은 현재 79만B/D로 확대됨으로써 20년동안에 무려 22.6배의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원유도입량은 1964년의 5백 83 만 5천배럴에서 1982년에는 1억7천8백36만9천배럴로 30.6배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정유산업은 과거 2차례의 석유위기에 따른 석유수요의 감퇴와 가동률의 저하로 심각한 시련에 직면해 있다. 또 정부의 脫石油 정책의 추진과 에너지소비절약으로 정유산업은 이제 구조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국내정유산업이 단순히 석유를 공급하는 기업이라는 관념이 존재하는 한, 석유 자원의 절대적 유한성과 함께 원유의 단순도입·정제방식에 의한 이른바 Independent Refinery로서의 국내 정유산업의 한계는 너무나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국내정유산업은 단순히 석유를 공급하는 기업에서 탈피, 綜合에너지産業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앞으로 산업구조가 에너지절약형 구조로 개편되는 것은 불가피한 추세라 하더라도 정유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국내에너지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며, 油類 대체등에 따른 여건변

화에 대응하여 수익원 다원화를 위한 경영의 다각화를 통해 꾸준한 성장을 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안정과 지속적 성장은 석유에너지공급과 경제성 제고를 위한 부단한 도전과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

## 지각없는 외제선호

## 부리썩는 경제질서